

1700년 한국불교가 빛은 성보 친견하며 역동과 불굴의저력 계승

‘삼보사찰 천리순례’ 여정에 친견하는 성보문화재

불국정도·불법홍포 발원으로 천릿길 곳곳에 부처님 조성

16년 대작불사 팔만대장경...전법 위해 돌에 새긴 석경도

송광사 국사전·해인사 희랑대사상은 대표적 승보문화재

올 가을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시작된다. 안락한 수단을 버리고 오롯이 두 발에 의지해 떠나는 423km의 여정은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시작돼 구례 사성암, 화엄사, 천은사, 남원 실상사를 지나 법보종찰 해인사, 밀양 표충사, 불보종찰 통도사로 이어진다.

긴 세월을 품어낸 이 길 곳곳에는 불교종흥을 발원한 이들의 발자취가 서려있다. 동시에 신앙의 결정체이자 정수인 ‘성보’ 문화재도 담겨있다. 19일간의 여정에서 마주할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은 모두 114건, 이를 사찰별로 나뉘보면 송광사 32건, 화엄사 12건, 천은사 6건, 실상사 10건, 해인사 25건, 표충사 3건, 통도사 26건이다. 이들 문화재를 다시 불·법·승 삼보로 살펴봤다.

佛 사리와 형상으로 친견하는 부처님= 불보종찰 통도사 대웅전에는 있어야 할 불상이 없다. 대신 법당 창문 너머 ‘등간 계단’(국보)이 보인다. 초층은 너비가 약 990cm, 총높이가 약 300cm. 이중의 넓은 방단(方壇) 중심에는 직경 150cm정도의 복련과 양련의 받침 대석이 놓여져 있다. 그 위로 석중(石鐘) 모양의 부도가 안치돼 있다. 이 부도 안에 부처님 사리가 봉안돼 있다.

“내 차라리 계를 지니고 하루를 살다가 죽을지언정 계를 어기며 백년을 살기 원치 않는다”던 신라 자장율사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 친견하고 받아온 부처님 가사와 사리로 세운 계단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계를 받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계를 받

는 것과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지리산 노고단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화엄사에는 섬세한 조각 솜씨가 돋보이는 ‘목조 비로자나삼신불좌상’(국보)이 있다. 불교 경전인 ‘화엄경’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 사찰인 만큼 불상도 진리를 상징하는 삼신불로 조성됐다. 삼신불은 탱화나 괘불로는 다수 남아 있지만 조각으로는 이 불상이 유일하다. 해인사에는 ‘쌍둥이 비로자나목조불상’이 있다. 대비로전에 나란히 봉안된 이 불상들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통일신라 목조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실상사에는 높이 2.7m ‘무쇠 부처님’이 있다. 구산선문 최조 가람 실상사가 장간됐을 당시부터 절터를 지켜온 ‘철조여래좌상’(보물)이다. 정유재란 때 절이 전소하고, 1883년 방화로 건물 10여동이 사라졌을 때도 절터를 의연히 지켜왔다.

송광사에서는 인도풍의 이국적인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다. ‘목조삼존불감’(국보)이다. 나무로 만든 통일신라시대 불감으로, 문을 열면 연꽃무늬 대좌에 이국적인 부처님이 앉아 있다. 양쪽으로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동자상, 사자상, 코끼리, 연꽃 등이 입체적으로 조각됐다.

法 나무와 돌에 새긴 법사리=부처님 은 열반에 앞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다.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하라’. 그 말씀 따라 신라, 고려, 조선의 불제자가 일생을 바쳐 나무와 돌, 화폭에 법을

새겼다. 세상이 혼란하고 암담해도 누군가가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나아가길 바라는 원력이었다.

해인사 ‘대장경’(국보)도 그 원력으로 새겨졌다. 1236년 참혹한 전쟁에서 몽골을 불력(佛力)으로 막아내고자 목판에 가르침을 새겼다. 섬에서 자란 자작나무를 발채해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근 후, 이를 다시 소금물에 삶고 그늘에 말려 대패질을 하고 나아겨 우 글씨를 새길 수 있다. 대장경은 강화도 선원사에서 조판에 착수, 16년에 걸쳐 조성됐으며 선원사에서 지전사로, 다시 해인사로 운반돼 봉안됐다. ‘장경각’(국보)에 보관된 8만1258장 경판은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장경판전’은 과학적 기술의 탁월함으로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화엄사에서는 돌에 새겨진 ‘화엄경’을 만나볼 수 있다. 바로 ‘화엄석경’(보물)이다. 이 석경은 현재 크고 작은 1만3115점 파편으로만 전한다. 통일신라시대 당시 3층 규모의 대법당 장육전에 봉안됐다. 한 땀 한 땀 돌에 새겨진 이 경전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방화로 장육전이 소실되면서 현재는 1만3115점의 파편으로 화엄사 성보박물관 지하 유물관 나무상자에 보관돼 있다.

송광사 ‘화엄경변상도’(국보)는 오묘하고 방대한 화엄사상을 한 폭 그림으로 담아냈다. 비단 바탕에 섬세한 필선으로 뽁뽁하게 그려져 있지만 흐트러짐 없이 정결하고 세련되게 표현돼 ‘화엄경’의 위엄을 한껏 살려내고 있다.

僧 사자상승, 영원한 법맥의 흐름=사람이 도를 닦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닦는 것이 아니다(人能弘道 非道弘人)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수승한 진리라도 그것을 널리 퍼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다. 한국불교는 1700여년 동안 호불 군주의 지지로 화려한 꽃을 피우기도 했고,

흑독한 억불로 명맥만 겨우 유지할 때도 있었다. 유구한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고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과 관련된 문화재도 ‘승보’라 여겨진다.

고승의 초상화인 진영은 그런 스님의 생애를 엿볼 수 있기에 존경받는 예배의 대상이 된다. 승보종찰 송광사의 ‘국사전’(국보) ‘십육조사진영’(보물)이 순례길에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승보다. 보조국사를 비롯해 송광사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16명 고승의 초상화로 지눌 스님을 중심으로 왼쪽에 7분이, 오른쪽에 8분이 배치돼 모두 16축으로 구성됐다. 규격, 제작수법이 흡사해 동일한 시기 같은 화사에 의해 일괄 제작됐을 것으로 보이나, 1995년 국사전 후면 벽을 뚫고 침입한 도굴꾼으로 인해 16점 가운데 13점이 도난된 상태다.

유일하게 현존하는 고승 초상조각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국보)도 대표 승보다. 자비로운 눈매, 얇게 다문 입가의 미소, 살갗 위로 드러나는 골격, 파부 표현까지 자연스러워 스님 생전 모습을 물론 내면까지 표현한 걸작이라 평가받고 있다. 높이는 82.4cm로 고려 10세기 전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임진·병자의 두 국난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불교계가 침체됐던 교세를 부분적으로나마 안정시킬 때 삼보사찰의 개념이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포교·신행·교화·사상·수행 등 전 분야에서 안정감을 찾아갔다”면서 “천리순례를 통해 만날 사찰 8곳은 불교를 다시 일으키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역사 현장으로 성보를 친견하는 것은 만행결사의 의미와 천리순례, 그리고 호국의 발원을 되새기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apbo.com

사찰	국보	보물
송광사	국사전, 화엄경변상도, 목조삼존불감, 해심고신제사	십육조사진영,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일괄,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전적,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소조 사천왕상,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영산전 후불탱·팔상탱, 응진당 석가모니 후불탱·십육나한탱, 약사전, 하사당, 경배, 경질, 금동요령, 고려고문서, 티베트문 법지,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 천지명왕수륙잡문 목판, 인천안목 목판,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 청량담수종심요법문 목판, 종경찰요 목판, 금강반야경소개원초 권4~5,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천과문, 대반열반경소 권9~10, 묘법연화경찬술 권1~2, 대승아비달마잡론소 권13~14,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각황전, 각황전 앞 석등, 사사자 삼층석탑, 영산회괘불탱	대웅전, 대웅전 삼신불탱, 원통전 앞 사자탑, 동 오층석탑, 서 오층석탑, 서오층석탑 사리장엄구, 화엄석경
천은사		국락보전, 국락전 아미타후불탱화,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 삼장보살도, 괘불탱, 금동불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철조여래좌상, 동서 삼층석탑, 석등, 승탑, 수철화상탑, 수철화상탑배, 중각대사탑배, 중각대사탑, 백장암 석등
해인사	장경판전, 대장경판, 고려목판, 건칠희랑대사좌상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석조여래입상, 영산회상도, 지장사형도, 감로왕도, 동종, 길상탑, 고려목판, 내전수원음소 권490 목판,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제다라니,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대방광불화엄경 진본,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사명대사탑 및 석각배, 흥제암
표충사	청동 은입사향완	삼층석탑,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괘불탱, 영산회상탱, 화엄탱, 석가여래 괘불탱, 아미타여래 설법도, 대광명전, 대광명전 삼신불도, 영산전, 영산전 팔상도, 영산전 벽화,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봉발탑, 삼층석탑, 사인비구 제작 동종-통도사 동종, 청동 은입사 향완, 청동 은입사 향완, 청동 은입사 향완, 금동천문도,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6, 문수사리보살좌상 승무생계경, 묘법연화경 권3~4, 묘법연화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9~10, 묘법연화경 권2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향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말국에 남겨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워렌시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침)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모연동참안내

-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 후원계좌
농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체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